이제열 법사의
경전속의 수행법 <6>

자신의 근기를 잘 파악하라

불자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로 쭐리반특가라는 이름을 가진 비구에 관한 일화가 <법구경>에 나옵니다.

형인 마하반특가와 함께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된 쭐리반특가는 형과는 달리 머리가 너무 우둔해서 수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부처님이나 장로 비구들이 가르침을 베풀거나 수행법을 일러주면 이해하지도 못 할뿐더러 금방 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쭐리반특가의 이러한 사정을 신통으로 아시고 그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쭐리반특가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면서 "너는 출가하기 전 집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하였느냐"고 물으시었습니다.

쭐리반특가는 '라조하라낭'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라조하라낭이란 쓸고 닦는다는 청소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좋다 너는 이제부터 다른 비구들이 머무는 승방을 대신 해서 항상 닦아주되 마음속으로 '라조하라낭'을 외울 수 있겠느냐"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아무리 우둔한 머리를 가진 쭐리반특가라 해도 그와 같은 일을 못 할리 없었습니다. 대답을 드린 쭐리반특가는 즐거운 마음으로 '라조하라낭 라조하라낭'(쓸고 닦으리, 쓸고 닦으리)을 일념으로 외우면서 승방을 닦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처님을 비롯한 모든 비구들이 파사익왕의 초청을 받아 궁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형의 만류로 왕의 초대에도 동행하지 못한 쭐리반특가가 혼자서 승방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라조하라낭을 외우면서 걸레질을 하던 그에게 크나큰 깨달음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은 방을 닦던 걸레를 보는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새로 만든 깨끗한 걸레가 청소를 하는 동안에 닳아지고 더럽혀져 그 처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되자 쭐리바특가에게 깨달음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쭐리반특가는 너무도 기뻐 "세존께서 쓸고 닦으라 한 것은 내 마음이었으며 모든 존재는 무상이며 무아이고 열반은 청정한 것임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였다"고 혼자서 말했습니다.

한편 파사익왕의 초청을 받으신 부처님은 역시 이번에도 신통으로 수도원에서 일어난 일을 아시고 다른 비구를 시켜 쭐리반특가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근기에 맞는 수행법 골라야 빨리 깨달아

그렇게 하여 쭐리반특가는 부처님 앞에 오게 되었고 부처님은 그에게 당신을 대신하여 설법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은 쭐리반특가의 설법이었습니다. 바보같이 단 한 줄의 게송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던 그의 설법은 일반 비구들은 물론 장로 비구들까지 감동을 받을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쭐리반특가를 칭찬하시고는 비구니를 지도하는 법사로 임명 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마음을 집중하면 좋은 이익을 얻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근래에 들어 수행하려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려면 자신의 근기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수행법을 받아 지녀야 한다는 점을 한번 일러 드리고 싶습니다.

<유마선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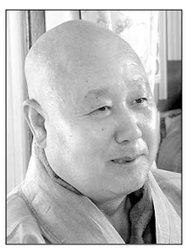
서원사 선원장 5인 초청 법석

3월 26일, 경남 창원 서원사(주지 자하)에서는 40여 년 동안 장좌불와로 정진해온 대해 스님, 오른 손 네 마디를 소신공양한 곡성 태안사 선원장 종대 스님을 비롯해 여러 스님들의 법문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보기 드문 법석이 열렸다.

이 날 특별 법석은 전국의 선원과 토굴에서 30여년 동안 정진해온 서원사 주지 자하 스님이 대덕화 보살의 부친 49재 회향을 맞아 함께 수행해온 도반 스님들을 법사로 초청, 영가와 대중을 위한 법석을 마련한 것이다. 법사는 모두 5인. 제주도 법화사 주지 시몽 스님의 영가 법문에 이어 대해 스님, 종대 스님, 문경 대승사선원장 탄공 스님, 김해 덕천사 주지 원천 스님이 법문했다.

"공부할때는 몇 번 까무러쳐야"

서원사 선원장 초청법회에서 49재 영가법문을 하는 시몽 스님. 사진=천미희 기자


대해 스님

탄공 스님

종대 스님

49재 회향맞아 영가·대중위한 법석 마련
수행 열기 '후끈' …학인 스님들도 함께 해

낙동강 줄기가 한 눈에 들어오는 서원사 작은 법당은 통도사와 범어사의 학인 스님들을 비롯 선원장 스님들의 법문을 듣기 위해 찾아온 사부대중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관욕, 상단 불공에 이어 시몽 스님의 영가 법문이 시작됐다.

"당(唐) 나라 현종(玄宗) 때 백애산(白崖山)에서 40여 년을 하산하지 않고 수행만 하시던 스님이 계셨는데 현종 때 국사가 되어 3대에 걸쳐 선정(善政)을 펴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혜충 국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입적하실 즈음에 국왕인 대종(代宗)이 입적한 후 원하는 일이 있느냐고 묻자 국사께서는 무봉탑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탑이 무봉탑인지 모르는 왕은 '그러면 스님께서 탑(塔)의 모양을 내려 주십시오' 했습니다. 국사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아시겠습니까?' 하고 다시 국왕에게 물었으나 국왕은 다시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국사는 '나에게 탐원 응진이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를 불러서 물어보세요' 하고는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법문의 핵심인데, 국사께서 돌아가신 후 응진을 불러서 그 뜻을 물으니 '삼강은 남쪽으로 흐르고 담강은 북쪽으로 흐르도다' 하고 매우 시적으로 왕에게 법문했습니다. 그 후 설두 스님이 출현해 응진 스님의 법문에 대해 '지적이면서도 고상한 말이어서 누가 알아듣겠는가. 그러나 그 가운데는 천하의 백성들이 먹고도 남을 황금이 온 나라에 충만하다' 고 송했습니다. 오늘 영가의 49재를 맞아 혜충 국사가 죽음에 임해서 하신 무봉탑의 법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어 자하 스님은 "향곡 선사의 제자로 40년 이상을 장좌불와 하며 수행정진 중인 대해 스님의 법문을 듣겠다"고 법문을 청했다. 대해 스님은 "장좌불와를 강조하시는데 오히려 죄송스럽다"며 법문을 시작했다. "어떤 것이 참 부처입니까? 또 어떤 것이 법입니까? 부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깨끗함을 말하고, 법(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맑음을 말하고, 도(道)라는 하는 것은 광명입니다. 제일구(第一句) 중에 얻었다고 하면 부처님과 조사의 스승이 되고 이구(二句) 중에 얻었다고 하면 한 사람의 스승이 되고 삼구(三句) 중에 얻었다면 스스로 구함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목청을 높여) 네 놈도 도둑놈이고 나도 도둑놈이다. 아악~."

대해 스님의 할(喝)로 법당 안의 고요는 더욱 깊어졌다. 이어 종대 스님의 법문 차례가 되었다. 그러나 종대 스님은 눈을 감은 채 말이 없었다. 짧은 침묵 사이에 행해진 무설설법(無說說法)을 들은 사이 없이 들은 대중들은 한층 깊어진 신심으로 법문을 경청했다.

탄공 스님의 법문이 계속됐다. "각화사 주지로 있을 때, 15개월 간 15시간씩 가행정진 결사를 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만 자고 수행했고 대승사에서는 3일전에 21일간 용맹정진을 마쳤습니다. 평소 여러분들은 하루에 잠을 얼마나 많이 주무시는지 모르겠지만 공부하실 때는 몇 번 까무러쳐야 합니다. 그래야 부처님 가피, 즉 공부에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스님들의 뒤를 이어 더욱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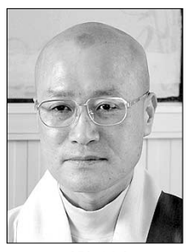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원천 스님은 "열심히 정진하셔서 참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라며 짧지만 간곡한 당부의 말로 법문을 마쳤다. 이어진 배송과 시식시간. 금강경 독송이 계속되는 동안, 종대 스님의 할(喝)이 한차례 법당을 울리며 대중들의 마음을 깨워놓았다.

부친의 49재로 이날 법회의 인연을 만든 대덕화 보살은 "바른 수행을 닦아오신 훌륭한 선원장 스님들의 법문으로 돌아가신 부친은 물론 많은 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린 법석이었다"고 말했다. 범어사 학인 보연 스님 또한 "제방 선원에서 공부하신 스님들의 수행에 대한 일심을 대하니 더욱 더 분발 정진해야겠다는 다짐이 절로 선다"고 말했다.

창원=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자하 스님 인터뷰

"수행·종합복지도량 가꿀터"


자하 스님

"이번 법회를 통해 대중들의 수행 열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선원장 초청법회, 육조단경 논강 등을 통해 수행 풍토 진작에 힘쓸 것입니다."

49재 회향을 선원장 초청법회로 대신하며 관심을 모은 서원사 주지 자하 스님은 앞으로도 참선 공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편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일곱 분의 선원장을 초청, 선원장 초청법회를 정식으로 열 계획"이라고 밝힌 스님은 조만간 시몽 스님의 <벽암록> 강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서원사를 승가와 재가 함께 수행하는 수행공동체로 가꾸기 위한 자하 스님의 노력은 각별하다. 참선, 기공, 명상, 불교교리, 참선법문, 발우공양, 다도, 포행 정진 등의 프로그램을 갖춘 주말 수련 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설 시민선방, 철야 참선 법회도 열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cafe.daum.net/seowonsa)을 통한 목요 사이버 법회도 개설했다. 특히 스님은 선방 노스님들이 거처할 수 있는 구참선원을 건립하기 위해 천일 기도 중이다. "서원사를 수행도량으로서뿐 아니라 치매병원, 요양원 등을 갖춘 종합 복지도량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사부대중의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서원사=(055)291-6405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구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다려서 (1달분 60봉, 보름분 30봉) 보시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 을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며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 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지수 대진 합장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합니다.
새로운 운으로 변하면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덩어리 복덩어리 황금덩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